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6. 4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페루 안초비 소형 선망어업, MSC 인증 추진..... 3
2. 미국 어류·야생동물국, 합동 단속에서 상어 지느러미 5만 개 압수..... 4
3. 고유가로 참치 공급 위축, 황다랑어 가격 최고치 기록 5
4. 글로벌 위기와 유럽 수산물 시장 재편..... 7

- 페루 북부 세추라 지역의 소규모 멸치 선망어업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MSC 인증 절차에 착수했으며, 풍부한 자원과 연구 기반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동성과 IUU 어업 등 관리 과제가 남아 있음
 - Compañía Americana de Conservas와 Corporación Leribe가 2016년부터 진행된 FIP 성과를 바탕으로 MSC 인증 절차를 공식 개시했음
 - 대상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Engraulis ringens* 멸치 어업 중, 세추라 지역의 인용(통조림용) 소규모 어업임
 - 높은 번식력·성장률의 풍부한 자원, 축적된 과학 데이터와 정기적 자원평가, VMS 장착 등 관리 기반 확보가 강점임
 - 한계는 기후 변동으로 인한 자원 변동성, IUU 어업 존재, TAC 설정 시 데이터 공백, 평가 대상 어업의 관리계획 부재임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peruvian-anchovy-small-scale-purse-seine-fishery-shooting-for-msc-certification> ('26년 4월 28일 검색)

- 미국 어류·야생동물국(USFWS)은 국제 공조 단속을 통해 약 5만 개의 상어 지느러미를 압수했으며, 이는 보호종을 포함한 대규모 불법 거래 네트워크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음
 - ‘Operation Thunder’ 수사를 통해 2025년 10월 앵커리지 등지에서 멕시코에서 홍콩으로 경유하는 불법 운송이 적발됐음
 - 총 20건, 1,600파운드 이상,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상어 지느러미 압수했음
 - 미흑점상어·큰눈환도상어 등 CITES 보호종이 다수 포함,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된 밀수 형태를 보였음
 - 미국의 상어 지느러미 거래 규제 강화(2022년 법 제정) 및 국제 협력 확대 속에서 단속 성과를 도출했음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fish-and-wildlife-service-seizes-50-000-shark-fins-in-coordinate-enforcement> ('26년 4월 28일 검색)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전 세계 참치 어선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성수기를 앞두고 참치 가격이 추가 급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
- 연료비 급등으로 어선들이 조업을 축소하면서 황다랑어 시장은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 푸드월드(베이징)에 따르면 4월에 여러 지역의 해양 연료 가격이 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선박들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항구로 복귀하였음. 그 결과 황다랑어와 가다랑어의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변동성이 커지는 거래 조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혼란은 선단에서 시작되었음. 유럽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태평양에서 운항하던 한 회사는 악천후, 연료비 상승, 어가 약세 등의 이유로 3월에 약 60%의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했음. 그러나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 시의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약 2,1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이후 선박들의 80%가 운항을 재개하였음.
- 한편, 필리핀 선단은 4월 15일 현재 해상에 있거나 출항을 준비하는 선박의 비율이 약 40%에 불과해 활동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임. 대만에서 출발한 일부 함대는 항구 체류를 연장했고, 몇몇 한국 선박은 정비 및 건조 수리를 위해 조기 복귀하였음.
- 공급이 위축되면서 특히 유럽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음. 스페인에서는 10~30kg 무게의 황다랑어 통참치 현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 오래된 재고를 보유한 기업들은 여전히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새로 어획한 황다랑어는 이미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조림 공장은 아직 즉각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음. 원료 재고는 여전히 충분하고 가공된 황다랑어 필레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현재로서는 구매 활동이 급격히 가속화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압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함.
- 유럽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수요는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분석가들은 이전에 낮은 황다랑어 가격 때문에 가다랑어보다 면세 할당량에 따른 수입이 더 경쟁력 있게 이루어져 재고가 축적되었다고 지적함. 그러나 여름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재입고는 통조림 공장에서 소매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더 높은 비용을 빠르게 전가할 수 있음.

- 물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란 분쟁 발발 이후 서태평양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운임이 약 40% 급등했음. 스페인 갈리시아와 같은 가공 허브 내에서는 현지 운송 비용이 20~25% 상승했으며 일부 배송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있음.
- 대부분의 스페인 통조림 공장은 현재 3~4개월의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전체 영향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
- 지역별 생산 추세도 고르지 않음. 대서양에서는 어류군집장치(FAD) 금지로 인해 가다랑어와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이 제한되고 있음. 가나 테마에서는 무게 20kg 초과 황다랑어가 톤당 약 2,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음.
- 에콰도르 만타의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높은 황다랑어 어획량은 연료 관련 문제를 부분적으로 상쇄했지만 압력은 커지고 있음. 에콰도르의 경유 가격은 불과 두 달 만에 갤런당 약 2.80달러에서 갤런당 4.50달러로 급등하면서 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유럽 구매자들은 공격적인 구매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 높은 연료 가격으로 조업 활동이 계속 위축됨에 따라 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 제약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에너지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한, 업계 전문가들은 황다랑어 가격 상승 추세가 조만간 반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 이는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여름을 예고하는 것임.

출처: www.seafood.media³⁾

3)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7871&ndb=1> (4월 20일 기사)

■ 브렉시트부터 2026년 중동 전쟁까지 EU 수산 부문은 고비용과 디지털 진화의 '뉴 노멀'을 헤쳐나가고 있음

- 요즘 유럽의 식탁은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음. 예측 가능한 신선 어획량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충격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음. 오늘 씨푸드 엑스포 글로벌 2026에서 유럽 수산양식 시장연구소 (EUMOFA)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완벽한 폭풍"의 압박 속에서 유럽 수산물 시장은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하는 상황임
-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망은 네 가지 주요 위협에 직면했음: 코로나 팬데믹, 브렉시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현재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 2026년 위기: 긴급 자금 지원 활성화

- 최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심각한 혼란으로 인해 전 세계 유가가 갑작스럽고 대규모로 급등하고 무역 흐름이 중단되었음
- 공급망의 완전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유럽해양 수산양식기금(EMFAF)의 위기 메커니즘을 발동했음. 이를 통해 회원국은 어업인, 양식 생산자, 가공업체, 소매업체에 직접적인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

■ 2026년 긴급 대응의 주요 수치

- 시행: 지원 조치는 2026년 2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4월 16일에 도입되었음.
- 사용 가능한 자금: 초기 13억 9천만 달러 프로그램에서 약 8억 1,100만 달러가 즉시 접근 가능함.
- 선례: 이 메커니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2022년에 마지막으로 활성화되었음.

■ 구매방식의 변화: 신선에서 냉동으로

- 코로나는 유럽인들의 수산물 구매방식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음. 코로나로 인해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면서 신선한 생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냉동 및 통조림 제품이 급증했음. 우크라이나와 이란 분쟁의 인플레이션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프리미엄 어획량보다 경제성과 유통기한을 선호하고 있음.

■ 브렉시트 병목 현상

- 2021년 영국의 EU 탈퇴는 영구적인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음. 국경에서의 지연, 새로운 검역과 할당량 감소가 "신선 냉동" 제품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음.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기금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영국의 "육상 다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구적인 물류 현실이 되었음.

■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

-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음:
 - 디지털화: 온라인 판매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자의 직접 디지털 추적 도구.
 - 다각화: 러시아 원자재 및 영국 대중교통 경로에 대한 의존도 감소.
- 2026년 위기는 화석 연료에 대한 업계의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EUOFA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탐색: 탄력적인 EU 시장 구축"이라는 주제로 2020년 이전의 안정성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였음. EU 수산물 시장의 미래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공급 안보를 위한 경쟁이 되었음.

출처: www.seafood.media⁴⁾

4)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7910&ndb=1> (4월 23일 기사)